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우울감 관련 요인 :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윤태실(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민주홍(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부교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정책적, 학문적 관심 증가
-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알려져 왔음
- 기존의 1인 가구 연구들은 1인 가구를 단일 집단으로 보고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
 - 1인 가구 내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부족
 - 1인 가구의 우울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소수의 국내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다인 가구와의 비교 없이 1인 가구의 우울감만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룸
-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1인 가구의 특성과 우울감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대별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또한 이러한 특성이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밝혀냄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한국복지패널 16차 자료(2021년)를 활용하여 1인 가구 2,172명과 다인 가구 9,355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
- 연령대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중년(40세 이상 59세 이하), 전기노인(60세 이상 79세 이하), 후기노인(80세 이상)으로 구분
-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증(Chi-squared test)과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연구결과

-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건강특성, 사회적관계특성은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건강특성 중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청년과($\chi^2=4.791, p<.05$) 중년 집단은 만성질환이 없는 비율이 높았고,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 비교할 때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와 건강만족도는 중년과 전기, 후기노인 집단의 다인 가구가 1인 가구 보다 더 좋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관계특성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만족도와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는 중년과 전기, 후기노인 집단의 다인 가구가 1인 가구 보다 높았으며, 여가생활만족도는 청년의 경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기노인은 다인 가구가 1인 가구 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음
-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1인 가구의 우울감 수준이 다인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중년($t=4.853, p<.001$), 전기노인($t=11.074, p<.001$), 후기노인($t=9.105,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
- 1인 가구의 우울감은 청년에서 후기노인으로 갈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인 가구의 경우 후기노인, 전기노인, 청년, 노인의 순으로 우울감의 수준이 높았음

논의 및 결론

- 같은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 1인 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 내 이질성 특히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특히 전기노인 및 후기 노인 1인 가구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 가구의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입 필요
- 중년과 전기노인, 후기노인의 건강상태,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친분관계만도는 다인 가구가 1인 가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 가구의 높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관심이 필요
- 모든 연령 집단에서 다인 가구 보다 1인 가구의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에서 건강과 가족 및 사회적친분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
- 1인 가구의 특성을 모든 연령대를 고려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봤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사료됨